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한반도의 위기, 무수단 발사와 브렉시트
발제자 :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일 시 : 2016년 7월 6일(수) 14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안보·경제 긴급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7월 6일 안보·경제 긴급세미나에서는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을 연사로 한반도의 위기, 무수단 발사와 브렉시트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한반도에 경제의 불확실성과 안보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다. 6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은 탈퇴를 선택했다. 하루 전인 22일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제와 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브렉시트의 여파로 한국경제는 불안한 상황에 놓였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 EU는 상품, 인력, 자본, 서비스의 4대 분야 이동 자유화를 기본 원칙으로 설립됐다. 국가 간 규제와 관세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을 이뤄냈지만 이민자와 분담금 문제 등 부작용 또한 존재했다. 특히 영국은 왜곡된 정보의 범람 속에 반EU 정서가 팽배하게 자리 잡았고 급기야 탈퇴로 까지 이어지고 말았다. 탈퇴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준다. 세대 간 인식차이가 수면위로 올라왔고, 지역 간 갈등은 영국 연방의 분열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영국이 탈퇴 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5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미국 태평

양의 최서단에 위치한 괌을 향해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수준의 기술발전을 보여 준 것이다. 핵무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 했느냐는 것인데 아직 미국 영토에 도달할 정도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김정은의 업적을 선전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에 위협을 가해 대북제재 공조를 흔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함께 일본과의 군사 협력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하겠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무력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브렉시트’ 를 선택한 영국

: 왜곡된 정보, 세대간·지역간 갈등으로

- 유럽연합(EU)은 로마조약에서 시작됐다. 로마조약 핵심은 단일공동시장의 완성을 골자로 했다. 노동과 자본 이동의 자유, 관세 철폐 등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지향하던 조직은 오늘날 EU체를 완성시켰다. 2차 대전과 같은 참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도 연합 결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영국은 EU 초창기부터 불협화음을 보여 왔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가장 큰 이유는 대중매체의 왜곡된 정보 때문이다. 매일 400만 부 이상 팔리는 타이블로이드 신문들은 대중들에게 질 낮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탈퇴 분위기를 조장했다. 영국의 SUN 잡지는 ‘유로는 쓰레기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로 EU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 브렉시트 투표결과는 그동안 수면 아래 보이지 않았던 영국 내 사회 문제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젊은 층은 잔류에, 장년·노년층은 탈퇴를 지지하며 세대 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지역 간 갈등도 나타났다. 스페인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지브롤터와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는 친EU 성향을 보이며 잔류를 희망했다. 하지만 국민 투표 결과가 탈퇴로 결정되자 즉각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영국 연방의 분열 조짐을 보였다. 탈퇴가 확정된다면 영국은 WTO내 지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당장 한국과 EU 간의 FTA 문제 해결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 브렉시트에 대해 낙관하는 주장도 있다. 영국과 EU 간 관계가 재설정 되면서 영국 목소리가 EU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영국 금융시장이 빠른 시간 내 붕괴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브렉시트 여파가 결코 긍정적이긴 어렵단 판단에서다. 한편 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완전히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은 설부르다. 미국의 신보호주의와 결합될 가능성도 낮다.
-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역시 8.4%로 낮은 수치지만 주식거래 대금에서의 비중은 34%로 높은 편이다. 상품 분야보다는 금융시장 분야에 직접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앞으로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EU도 탈퇴를 처리해본 경험이 없던 터라 판단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EU와의 FTA가

중요한 우리는 현재의 EU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만일 영국과 별도 FTA를 추진하더라도 기존 협정내용에서 조금 수정된 정도일 것이다.

■ 엇갈리는 영국의 전망

: 브렉시트의 파장, 한국 경제의 미래

- 탈퇴를 부추기는 선동과 왜곡된 정보의 홍수 속에 영국 국민들은 정작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브렉시트의 주요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이민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영국 내 존재했었다. 과거에도 영국은 북유럽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 왔다. 2004년 이후부터 폴란드의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됐다. 하지만 우려할 만큼의 증가 추세는 아니었다. 영국 내 이민자 수의 증가가 마치 사회 문제로까지 번진 것처럼 과장하여 보도함으로써 불신을 조장한 셈이 돼버렸다.
- 영국의 EU 탈퇴는 지역마다 온도차를 드러냈다. 런던은 잔류에 강세를 보였고 영국 북부지방은 탈퇴 쪽으로 힘을 실었다. 하지만 EU에 소속되어 가장 큰 혜택을 입고 있는 지역은 공교롭게도 북부지방이다. 세대간 차이도 있었다. 청년층은 잔류에, 장년층과 노년층은 탈퇴를 지지하면서 이분화 양상을 보였다. 장·노년층의 결정이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세대의 결정을 뒤엎은 것이다. 브렉시트 후폭풍은 거셀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한 국가의 주권은 독립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질서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주권행사는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금융의 허브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영국의 EU 탈퇴는 주변국에서도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특히 내년 프랑스 대선에 최대 화두는 EU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이탈리아는 금융기관의 자본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고, 재정문제와 경기침체로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독일과 프랑스 간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탈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EU의 앞으로 태도는 유연해질 것이다. 영국 내 이념대립 역시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다.
- EU 분열이 가시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붕괴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영국은 탈퇴 비용을 최소화 할 것이고, EU 역시 탈퇴 파급을 줄이려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EU의 입장에서 어찌됐든 탈퇴국에게 페널티를 적용해야 EU내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반면 앞으로 EU의 협력 강화를 전망하는 관측도 있다. 유로를 중심으로 더욱 강한 बैं킹 유니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안보문제와 직결된 테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유럽은 뭉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만 영국은 현재 우리와 협상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 영국의 EU 집행부에 대한 불신은 40%대 이지만, 자국에 대한 불신은 더 높은 60%이다. 자국 정치인의 정치적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성과는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자세는 국가 분열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앞으로 세

계경제는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고도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분배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과거보다 잘 살고 있는지가 아닌, 남들보다 잘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잣대로 등장할 것이다. 브렉시트 혼란 속에서 젊은 세대의 투표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정치 갈등과 경제 위기 해법은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세계 청년들이 모여드는 유럽 대륙에서 문을 잠근다면 영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새 총리 메이의 리더십을 기대해본다.

■ ‘5전 6기’ 북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 핵무기의 소량화·경량화, 현실로 다가온 한반도 위기

- 지난 6월 22일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했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서 태평양 지역의 미국 영토를 공격 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태평양 최서단에 위치한 괌이 타격 가능해졌다는 점은 분명 군사적 도발이라 할 만하다. 북한이 그 동안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다만 미국과 중국 핵 전문가들은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상당한 수의 핵무기를 만들었고, 앞으로 핵무기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 했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B, 스커드-C 또는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는 소형화·경량화 하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무수단 미사일은 2007년 실전배치 되었지만 시험 발사를 실시하지 않아 그동안 성능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무수단 미사일이 실재하고 있음이 증명되었고, 한국 및 미국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괌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의 위기가 야기될 수 있다.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지원하고 북한과 대치상황을 벌이면 북한은 괌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한국이다. 현재의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제(KAMD)’기술로 북한 미사일을 공중 요격하기란 어렵다. 사드는 고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다. 이번 무수단 미사일의 성공에 따라 사드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

- 이제 한국은 탄도미사일방어(BMD)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구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드 배치와 함께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방공미사일(L-SAM) 개발 속도도 높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본 역시 북한 핵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2012년 중단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재검토가 필

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한 총력적 대비이다. 국가는 모든 역량을 핵 대비로 전환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근시안적인 포퓰리즘 안보정책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THAAD)배치 필요성

- 브렉시트로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핵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김정은의 오판이다. 북한의 잘못된 판단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화염으로 뒤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이 가져다 준 시사점은 크다. 북한은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낙탄 되었다.”고 자평했다.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엔진출력이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점이다. 사거리는 약 3,500km 가능해졌고 비행자세 제어 기술력 역시 진전됐다. 특히 고정된 발사대가 아닌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했다는 점은 무거운 미사일을 지탱하고 이동하면서도 사거리뿐만 아니라 정확성까지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단 무수단 미사일 대기권내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탑재 기술 여부는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
-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김정은 업적을 선전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도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미국 본토 공격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꺾이지 않는 굴기 공작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성공 주장은 공공연히 대북제재 공조 흔들기이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 성공으로 핵보유국 지위 요구를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시리아 내전과 IS 테러 등 국제 사회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린 상황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냈다.
- 우리군은 한미연합방위태세 공고화, 한미일 정보공조 체제 보강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의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어려움이 있다.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 일부 언론의 사드에 대한 부정적 논조는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핵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착시효과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북 문제는 경중을 따지지 말고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남북 대치 상황에 긴박감을 유지하고, 우리 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안보·경제 긴급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브렉시트’를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답변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각 국가는 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보호주의 확산 조짐은 정치적 민족주의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경제 불황도 민족주의 양상으로 불거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브렉시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문제인식을 갖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질문2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에 회의적 입장이다. 소형화 성공의 시각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답변 미국이 최초로 핵무기를 만들었을 당시, 무게는 약 4톤, 위력은 TNT 1만 5천 톤에서 2만 5천 톤 정도였다. 현대에는 같은 위력을 유지하고도 무게를 2톤까지 줄였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은 약 1톤, 노동 미사일은 800kg, 무수단 미사일은 650kg까지 탑재 가능하다. 발사 엔진이 동일하다면 200kg까지는 무게를 줄여야 미국 본토에 핵 미사일을 도달시킬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200kg까지 경량·소형화했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

질문3 한미 안보동맹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것인가?

답변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다. 위로는 북한과 중국을 마주하고 있고 동쪽은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도 큰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미국 내 2백만 재미교포 위력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전작권 회수 요구 운동 같이 한반도 분열을 초래하는 전략적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